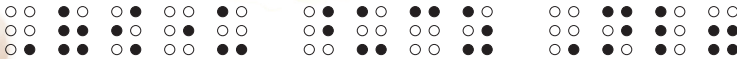


2016 | 10 October
vol.195



소리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전자책 시대에 즈음하여

테마기획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인 터 뷰

2016리우패럴림픽
유도의 금빛 히어로, 최광근 선수

포커스

귀로 듣는 오페라 현장,
오페라에 해설을 더하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흰지팡이

04 | 시선집중 - 전자책 시대에 즈음하여 / 이인학(국립장애인도서관장)

06 | 테마기획 -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08 | 인터뷰 - 2016리우패럴림픽 유도의 금빛 히어로, 최광근 선수

10 | 포커스 - 귀로 듣는 오페라 현장, 오페라에 해설을 더하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사랑은 촛불 / 한혜경(경기도 용인시)

13 | 월드 리포트 - 폴란드, 태아 피규어를 제작해 드립니다!
- 호주, 시각장애인 소년의 요청으로 첫 점자지폐 발행

14 | 뉴스앨범 - '제7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열려
- SK네트웍스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6년 스포츠여가지원사업 수영교실 마무리
- Les amis 동호회, 뽀띠프랑스에서 프랑스 문화 체험!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에게 대필 및 대독 서비스는 필수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10월 195호

발행일 2016년 10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도움을 주는 흰지팡이,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흰지팡이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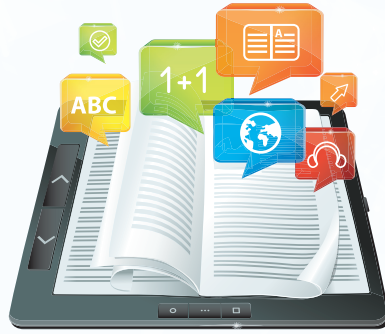


흰 지팡이

02-11-00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ㅓ	ㅛ	ㅜ	ㅠ	ㅙ	ㅚ	ㅜ	ㅠ	ㅓ	ㅛ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초, 쌍, 짜]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전자책 시대에 즈음하여

이인학(국립장애인도서관장)

지난 6월 24일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와 전자책 인증 기준을 심의·의결하여 공표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독서 장애인들은 전자책을 마음대로 구입하여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인가? 필자는 그런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러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본다.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의 개념과 유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자.

전자책이란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의 총칭이다. 전자책을 다르게 부르는 말에는 e북과 ePUB가 있다. 전자책을 영어로 옮기면 electronic book이므로 e북이라고도 하며 전자출판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용어이므로 ePUB라고도 한다.

전자책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온다. 1단계는 전자책을 제작·출판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유통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통해 구입하여 책을 보는 단계이다.

전자책이 독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 권한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필자는 전자책이 독서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각 단계별 핵심적 권한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전자책의 제작과 출판 단계에서의 역할

독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법 중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은 독서 장애라는 특수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이미 제작·출판되어 나와 있는 서책, 영상, 회화 등을 독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보완하는 이른바 대체자료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자책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독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문제는 접근성을 얼마나 정확히 보장하느냐이다. 이때 핵심적 권한자인 전자책 제작사들의 역할이 접근성을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의 열쇠인 셈이다. 전자책 제작사들의 접근성 보장 실천 역량에 따라 이들의 손을 거쳐 탄생되는 전자책의 접근성 운명이 좌우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인데 이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를 공표하였으므로 잘 지켜 제작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이 보장되는 전자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자책 제작사들이 제작한 초벌 전자책이 얼마나 접근성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접근성 인증 단계이다. 이 단계는 웹기반이나 C/S기반으로 운용되는 접근성 검증 플랫폼을 통해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초벌 콘텐츠를 테스트하여 접근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이다. 이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도하에 접근성 인증 플랫폼이 개발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고 접근성 인증 기준 역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접근성 가이드와 함께 지난 6월

24일 공표하였으므로 환경은 조성된 셈이다. 이 단계에서 우려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출판사들이 과연 자율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할까라는 것이다. 이 단계의 성공 여부는 이 단계의 핵심적 권한자를 자율적 검증자로 할 것이냐, 제도와 법규범으로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 캠페인,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후자의 경우 제도와 법, 규정을 제정하여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2. 전자책 유통 단계에서의 역할

전자책 유통 문제는 우리나라 소규모의 전자책 출판 시장 규모로 볼 때 아직은 요원한 사안이다.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통 정책 측면에서 몇 가지를 논해본다.

접근성이 보장된 전자책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과 접근성 수요자 인식의 두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복지 정책이란 출판사가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복지적 관점에서 보전해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접근성 수요자 인식이란 독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값으로 접근성 보장 전자책을 구매하여 읽겠다는 생각이다. 전자책 유통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확보될 때 비로소 원활한 유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복지 정책이 수립되면 수요자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여긴다.

3. 전자책 구입 단계에서의 역할

이 단계에서는 전자책 단말기 제조사가 핵심적 권한자이다. 접근성이 보장되는 전자책을 잘 만들었다 하여도 단말기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콘텐츠는 허사일 뿐이다. 또 단말기가 아무리 접근성을 잘 보장한다 하여도 오디오 기반으로만 제조된다면 촉각 의존도 독서 방식이 무시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자책 단말기에 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오디오 기반의 단말기는 전자책 유통사가 중심이 되어 접근성 보장 문제를 다루되, 접근성이 보장되는 전자책 단말기의 경우 전 유통사의 콘텐츠를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전자책은 IDPF(The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규정한 데이지 규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현재 추진 중임) 데이지 3.0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ePUB 3.0의 규약 중에서 기존의 데이지 규약이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을 찾아 데이지와 ePUB를 모두 취급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또 전 유통사의 콘텐츠를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단말기 제조사들은 발 빠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필자는 전자책 접근성 지침과 인증 기준이 공표된 시점에서 각 핵심 권한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필자가 강조한 대로만 된다면 전자책 시대를 낙관적으로 조망해도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사, 유통사, 단말기 제조사, 국가, 소비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면 될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10년에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설계, 보편적 접근성 등 ‘보편’이란 말이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 : World Blind Union)에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15일, 흰지팡이 날(the White Cane Day)인데요. 흰지팡이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흰지팡이는 리처드 후버(Richard Hoover) 박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이와 같은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이름 붙여졌는데요. ‘흰지팡이 날’ 선포문에는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언제부터 흰지팡이를 사용했을까요?

1900년대는 세계대전으로 시각장애인이 증가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벨리포지 군병원(Valley Forge General Hospital)의 안과 의사였던 리처드 후버 박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흰 색을 칠한 지팡이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흰지팡이는 1931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적사회봉사활동 단체) 대회에서 표준화 기준이 마련

되었으며, 이후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각국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홀로 걸을 수 있다는 자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길을 걷는 것은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지팡이로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을 도울 때는 일방적으로 흰 지팡이를 잡아 끌면 시각장애인이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말로 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올해 ‘제37회 흰지팡이 날’을 맞이하여 전국단위의 기념식이 10월 14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약 3,000명의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노래자랑, 율놀이 등 화합의 한마당이 이어졌고, 각 지역별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는데요.

10월 한 달 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릴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지지대로 재활과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6리우패럴림픽 유도의 금빛 히어로, **최광근 선수**

2012런던패럴림픽에 이어 2016리우패럴림픽까지
2연패의 영광을 거머쥔 사나이, 최광근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금메달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유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또래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었어요. 162cm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과체중인 제가 걱정되셨는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아보셨고, 그렇게 유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재미를 느끼고 유도선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유도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도가 워낙 격한 운동이다 보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시작했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힘들다는 생각과 함께 흥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유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어리고 힘든 마음에 가출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다잡은 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유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도로 대학교에 진학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각장애를 얻게 되면서 장애인 유도로 전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유도로의 전향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때 훈련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손가락에 찔려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망막박리라는 판정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망막박리는 작은 충격에도 재발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유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잠깐의 좌절이 있었지만 유도가 아니면 사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계속 했지만 대학 졸업 후, 시력이 약화되어 실업팀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죠.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장애인 유도를 알게 되었고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유도로 전향하고 훈련을 하면서 비장애인 유도를 했던 시기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원시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런던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다시 출전하게 된 2016리우패럴림픽을 준비하면서 금메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금메달 유력 후보로 거론된 것도 아니었고 슬럼프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졌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진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기에 임했고, 그 결과 감사하게도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가 따라와 준 것 같습니다.

결승에서 브라질 선수인 테노리오 안토니오 선수와 붙게 되었을 때, 안토니오 선수를 향한 브라질 관중들의 환호성과 응원이 대단했는데요. 경기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나요?

2012년 런던에서도 영국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에도 자국 선수를 향한 많은 관중들의

합성과 응원이 더해졌었어요. 그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크게 동요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승 때는 ‘이 무대에서 내가 상대를 이기면 정말 멋진 경기가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금메달 획득 후 관중석으로 달려가 아내와 포옹을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는데, 경기 전에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꼭 금메달로 보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금메달이 확정되고 나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아내와 약속한 것이 생각나 관중석의 응원 차 방문한 아내에게 달려가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드님께도 유도를 추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들이 유도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한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지만, 아들에게 유도를 먼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도라는 운동이 부상 위험이 크고 유도 선수는 자신을 계속 단련해야 하는 외로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도의 매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인생에도 한 방이 있듯이 유도 역시 상대방을 메쳐서 이길 수 있는 한 판이 있습니다. 이번이 많은 운동이고 그만큼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유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상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선수로서 도전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3연패에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로서 은퇴한 후에는 생업을 포기하고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오페라 현장, 오페라에 해설을 더하다!

연기와 노래로 이루어진 오페라에 해설을 더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 : 부산 영화의전당 '어둠 속의 오페라, 라보엠' 현장

지난 9월 8일, 부산의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어둠 속의 오페라, 라보엠(La Bohème)'이 공연되었습니다. '라보엠'은 보헤미안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지아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의 작품인데요, 4막으로 이루어진 크리스마스 날 시작된 가난한 연인들의 뜨겁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민영방송인 KNN은 공개방송 형태로 화면해설 오페라 '라보엠'을 선보였는데요, 암전 속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시각장애인 성악가 정재문의 특별출연을 비롯해 경력 10년 이상인 성우들의 전문적인 해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진 : 예술의 전당 '마술피리' 공연장 및 현장해설 모습

‘어둠 속의 오페라, 라보엠’의 공개방송 내용은 KNN 파워FM 99.9MHz에서 ‘흰지팡이 날’인 10월 15일 오전 9시에 제작기와 함께 전파를 탈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25일에는 서울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람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82명에게 라이브 해설이 제공되었는데요. 해설은 ‘형사 가제트’, ‘맥가이버’ 등의 캐릭터로 친근한 성우 배한성과 KNN의 정희정 PD 겸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무대, 연기, 의상, 자막 등 시각적 상황을 전용 이어폰을 통해 압축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오페라를 관람한 시각장애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를 해설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며 “시각장애인도 해설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는 관람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랑은 촛불 한혜경(경기도 용인시)

월급이 들어왔다. 한 달 동안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내 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금 돌아보면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태어나 얻은 첫 직장은 어찌 보면 내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곳이었는데...

짧게 휴대폰이 진동하며 월급이 입금되었음을 알리는 은행 애플리케이션 알림이 무뎠던하게 울린다. 출금될 땐 그렇게도 회피하고 싶었던 그 알림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거의 처음으로 행복감을 안겨다 준다. 편의점에서 4천 원 어치 초코바도 못 사서 어린 고등학생에게 돈을 빌렸던 나에게 초코바를 마음껏 사먹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무뎠던하게 들어온다. 그 무뎠던함이 너무 기뻐서 한참을 울먹거리려본다.

울타리를 한 겹씩 제껴 내고 나온 사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할지 애매했던 상황들, 화가 나도 목소리 톤을 유지해야 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아침들, 그 모든 장면들이 뇌리를 쭈르륵 미끄러져 내리며 이유 모를 뜨거움을 자아냈다.

퇴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보가 터졌다. 지금 당장 내 힘들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게 외롭게 쓰라렸다. 택시를 불러 타고 무작정 할머니 집 주소를 불렀다.

작은 빌라 앞에 택시가 멈춰서고, 천천히 내려 빌라의 반지하로 계단을 밟아 내린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랜만에 맡아 조금은 생소한 지하 특유의 냄새와 할머니 집 앞에 거의 늘 피워져 있는 모기향의 냄새가 적절히 섞여 마음을 좀 진정시켜 준다. 눈물을 닦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선다.

드라마 소리, 할머니 목소리, 열은 된장 냄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치 나만이 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다. 오고 싶을 때만 오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손녀가 할머니는 그래도 반가우셨나보다. 내가 차갑게 내뿜는 대꾸들이 할머니한테는 어린 투정이었나 보다. 고등학생 때 학교를 다녀오면 맞아주던 모습 그대로 나를 맞아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다시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할머니랑 몇 마디 하지도 않고

잠에 들었다. 아니, 들은 척 했다.

그렇게나마 지쳤던 마음을 충전시켜 다시 부지런히 출퇴근을 하며 일하기를 어언 한 달. 여름방학 동안의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온 것이었다.

돈을 아끼신다며 에어컨도 보일려도 잘 안 트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가까운 마트를 놔두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시려 먼 시장까지 다녀오시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내가 유치원생 때보다 지치신 할머니 목소리가 나는 아팠다.

울먹거리며 할머니 계좌번호를 받아 적고 월급의 3분의 1을 송금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남산으로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햇볕이 예쁜 바다로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에 가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삼매경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돈이나 송금한다는 것이 그저 너무 원망스러웠다.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하신다. 더 미안하게.

“혜경아, 사랑한다!”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인사하던 우리 할머니. 할머니에게 더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예쁜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이 느껴진다. 나는 아직 철이 들려면 좀 남았는데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만 같다. 목구멍을 타고 무언가 따갑게 올라온다.

사랑이라는 것, 내가 너무 거창하게 새겨놓았던 모양이다. 사랑이란 그렇게 난잡한 것이 아닌데...내가 언제 방전될지 몰라 촛불처럼 늘 불을 밝히고 기다려주시던 우리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모습이 사랑인 건데, 다른 빛들이 밝아 미처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너무 먼 곳만 보느라 내가 이토록 사랑 받는지도 모르고 거만하게 산 것 같아 숙연해지는 오후다. 시간아, 조금만, 조금만 더디게 흘러주라. 내가 촛불이 될 때까지만.

폴란드, 태아 피규어를 제작해 드립니다!

폴란드의 회사인 '인 유테로 3D(In Utero 3D)'가 초음파 사진에 찍힌 태아의 모습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웨이팅 위다웃 베리어스(Waiting without barriers)'를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태아를 확인할 때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찍어주거나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인 유테로'는 초음파 사진에 찍힌 태아의 모습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피규어로 제작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원 정도



이며 폴란드 거주 시각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 폴란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들어 제공(우리나라 돈으로 약 1249원)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각장애인 소년의 요청으로 첫 점자지폐 발행

호주에서 시각장애인 소년의 요청으로 점자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3년 전, 호주의 11살 시각장애인 소년 맥러드가 성탄절을 맞아 선물 받은 지폐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진정을 호주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호주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난 9월 1일부터 호주 사상 처음으로 촉각을 이용해 구별이 가능한 5달러 지폐가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지폐의 구별을 위해 지폐 모서리에 설탕 한 알 크기의 작은 돌출부 2개를 넣어 촉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발행될 모든 지폐에도 유사한 기능을 넣을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호주의 시각장애인 약 3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제7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 열려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와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상임대표 이낙영)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시각장애여성지도자 연수'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전국의 여성 시각장애인 지도자 약 100명이 참석해 시각장애여성지도자로서 연대와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1박 2일의 일정 동안 전국의 여성 시각장애인 지도자들과 시각장애여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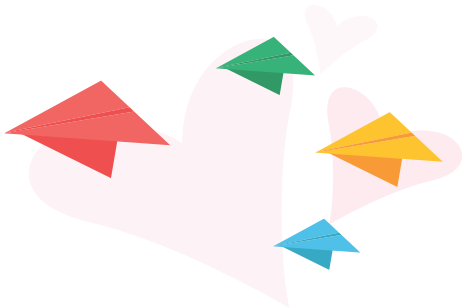


SK네트웍스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9월 27일 화요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그린토피아 체험장에서 SK네트웍스의 후원으로 '시각장애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립서울맹학교와 한빛맹학교 아동 30여 명이 참가한 본 행사에서는 가을맞이 배따기 체험, 누에고치 실뽀기, 촉각을 활용한 달팽이 관찰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손수건을 직접 염색해보고 꽃잎으로 만드는 전인화전 만들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한 시각장애아동들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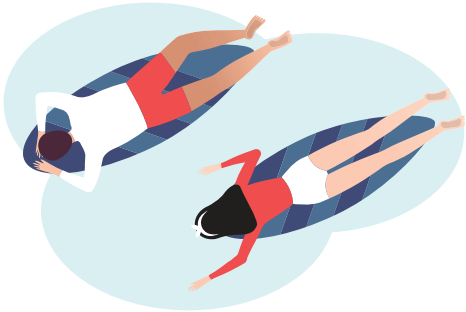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6년 스포츠여가지원사업 수영교실 마무리

3월부터 9월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12시부터 50분 동안 수영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영 교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일대일 강습으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는데요, 9월 29일 목요일에는 2016년도 수영 교실의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수영을 배우며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자유자재로 물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자유롭게 물 속 세상을 즐기는 2016 수영교실 수강생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Les amis 동호회, 뷔띠프랑스에서 프랑스 문화 체험!

지난 9월 20일, 친구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 동호회 레자미(Les amis) 동호회는 프랑스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뷔띠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뷔띠프랑스에서 에펠탑 등을 관람하며 실제 프랑스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동호회 중 하나인 레자미는 매월 3회의 모임을 통해 프랑스어 공부와 프랑스 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자미 동호회는 추후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관람 및 응원을 통해 프랑스 시각장애인들과의 교류 및 6년 후 프랑스 방문을 통한 현지 문화 체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